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남성알코올중독자의 삶의 경험

Penomenological study on Experiences of Life among Mail Alcoholics with Suicide Attempts

우재희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Jea-Hee Woo(jhwoo@cup.ac.kr)

요약

본 연구는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남성알코올중독자의 삶의 전 과정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그 본질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Colaizzi의 분석방법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고유경험을 깊이 있게 기술하였다.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남성알코올중독자의 삶의 경험의 본질적 구조는 총 12개의 주제와 5개의 주제묶음이 도출되었다. '심리·정서적 암흑의 굴레 지속하기', '인정하기 싫은 하찮은 자신과의 조우', '자살을 부추기는 방아쇠', '음주와 자살의 뿌리-원죄 같은 해결되지 않은 숙명과 함께 살아가기', '삶의 끈을 잡고 일어서기'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알코올중독자를 위한 정신보건사회복지 실천적 개입방향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알코올중독 | 자살시도경험 | 삶의 경험 | 현상학적 연구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oring the experiences of life among alcoholics who suicide attempts. The main question of this study is "what the meaning and essence of experiences of life among alcoholics with suicide attempts?"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taken for widely understanding and lively writing experiences of life among alcoholics who suicide attempts in the connection of their lives. As results, 12 categories appeared from 5 themes as data analysis. The major themes could be analyzed as "Continuing a dark confines of the psychology, emotion", "encounter with worthless oneself of the loath to admit", "The trigger inciting to suicide", "The roots of the drinking and suicide -living with fate", "Holding up a string of life". Based on these results, th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alcoholics with suicide attempts had been discussed.

■ keyword : | Alcoholism | Suicide Attempt | Experiences of Life | Phenomenological Study |

I. 서론

최근 우리사회는 산업화로 인하여 하루가 급변하고 있고, IMF체제 이후 지속되는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자살, 알코올 중독,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가 심각해졌다[1]. 우리나라 고위험 음주율은 2005년 14.9%에서 2010년 17.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 또한 우리나라

접수일자 : 2013년 11월 29일

수정일자 : 2014년 01월 27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2월 03일

교신저자 : 우재희, e-mail : jhwoo@cup.ac.kr

의 자살률은 지난 10년 사이에 좀 더 엄밀히 말하면 1997년 경제위기를 통과하면서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불과 7-8년 사이에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였다. 알코올 사용 장애는 자살위험과 높은 연관이 있는데 알코올중독자의 자살율은 일반인에 비해 6배 정도 높다[3]. 자살의 개념은 단지 자신의 삶을 끝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과의 일종의 의사소통이며 스스로 삶을 끝내는 행위를 통해서 살아서는 충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도의 표현이다[4]. 알코올사용의 증가는 자살사고, 자살시도, 자살을 예언한다[5]. 알코올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알코올중독자의 40% 정도가 적어도 한 번 이상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7% 정도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고 했다. 알코올 사용 장애는 자살생각, 계획, 시도뿐 아니라 자살행동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음주가 자살의 주요 요인이다[6]. 알코올중독자들에게 있어 자살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알코올중독자의 자살관련 선행연구들을 어떠한 다양한 삶이 영향을 주게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알코올중독자의 삶의 경험과 자살에 관한 국외연구를 살펴보면 심리적 장애, 대인관계 상실을 음주와 자살의 경로로 보았다[7]. 특히, 심리적 장애 중 우울경험을 자살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8]. 알코올중독자들의 자살관련 요인들에 관한 연구는 1990년 후반에 활발히 이루어졌고 경제적 상태, 이중장애, 불안, 우울, 알코올 가족력, 자살시도 경험, 가족관계 등 삶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9-11].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자살을 예측하는 변수를 선별하여 살펴보는 연구들로서 알코올중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삶의 경험이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한편, 국내의 알코올중독자들의 자살관련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알코올중독자의 자살생각에 중점을 둔 연구[12][13]가 있고 질적 연구로는 윤명숙, 최수연[14]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알코올중독과 자살생각, 자살시도 경험을 함으로써 살아가게 되는 삶의 모습, 과정에 대해 연구한 것으로

서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주제인 자살경험을 한 알코올중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삶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되는 요인들을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알코올중독자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대인관계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이 자살위험을 증가시킨다[15]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남성알코올중독자들의 자살시도경험에 영향을 주게 되는 삶의 전반에 걸친 경험들에 대한 탐색은 음주와 자살과의 관련성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보다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남성알코올중독자들이 여성알코올중독자보다 알코올중독 및 약물중독으로 자살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16] 남성알코올중독자들의 자살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내용, 본질을 탐색함으로써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심리적, 사회 환경적 등 총체적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살경험이 있는 남성알코올중독자들의 실천적 개입에 있어 다각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외의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남성알코올중독자들의 자살 시도경험 이후의 삶이 아닌 자살을 선택하게 한 자살 이전의 삶 전반에 대해 탐색을 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살시도를 한 남성알코올중독자는 삶의 전 과정을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고, 어떻게 자신과 주변인들을 인식하면서 자신을 자살경험을 하게 하는지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남성알코올중독자의 자살과정에 영향을 주는 인생 전반의 이야기와 맥락적인 경험을 통해 자살시도 경험을 한 남성알코올중독자들의 핵심적인 문제, 욕구 접근의 개입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실천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자살경험이 있는 남성알코올중독자의 삶의 경험은 어떠한가?’ 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알코올중독과 자살과의 관계

알코올 중독집단은 자살행동에 대한 위험이 매우 높

다고 알려져 있다[8][17][18]. 과도한 음주는 생리적, 친구나 가족과의 갈등, 직업 상실 등의 사회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자신과 타인에게 해로운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한다[19][20]. 또한 알코올중독자가 과거 자살 시도력이 있을 경우, 알코올가족력이 있는 경우, 자살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11][21].

알코올중독과 자살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살은 술을 마신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고, 알코올 의존으로 인해서 우울이나 자살 기도라는 문제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22]. 또한 음주와 자살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음주문제를 줄이는 것이 자살예방의 핵심이라고 했다[23]. 알코올중독자의 40%정도가 적어도 한 번 이상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7% 정도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고 했다.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로 사망한 알코올 의존인 사람들은 대조군에 비해서 알코올 의존의 심각도가 더 높다고 보고했다[24] 알코올 및 약물을 남용하는 사람들의 높은 사망원인은 자살이며 자살생각이나 자살 시도와 알코올중독의 관계에 대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고했다[13]. 자살시도자의 1/4정도가 알코올중독자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알코올중독자에게 있어 자살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15]. 알코올중독자들은 심리사회적인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삶의 목적의식이 비교적 낮은 실존적 공허 상태에 처하게 된다[25] 이러한 실존적 공허상태와 자살은 연관이 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의 상실은 심리적 고통과 허전하고 텅 빈 느낌의 실존적 공허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자살, 우울증을 유발하게 된다[26-28]. 구체적으로 알코올 중독자의 삶의 목적의식과 자아개념과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 인생목적과 목표달성, 생활만족, 미래열망, 자아충족은 자아개념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실존적 공허는 자아개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알코올 중독자의 인생목적과 목표달성, 생활만족, 미래열망, 자아충족이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높았으며, 실존적 공허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9].

2. 알코올중독자의 심리사회적 자살요인

자살은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다면적인 현상으로서 개인적 변수와 더불어 외부적인 변수에도 영향을 받는다[27]. 자살은 개인·심리적인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 중 어떤 하나에 원인이 있다고 규정지을 수 없다[29]. 알코올중독자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가족간의 갈등 및 사회에서의 역할과 지위의 상실 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소외감, 무기력증, 삶의 목적 상실과 같은 정신건강의 부정적 측면이 강화되면서 삶의 만족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0]. 알코올중독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음주관련요인, 가족요인, 개인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하지만, 특히 가정폭력과 같은 외상경험, 우울, 재발 위험증상 등이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1-33]. 알코올중독자들의 삶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고통들은 알코올중독 발생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알코올중독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살을 경험하게 하는 전제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살을 시도한 알코올중독자들은 아동기 성학대 경험을 가지거나 자살가족력이 있거나 높은 행동적 충동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6]. 자살을 시도하는 알코올중독자들은 자살시도경험이 없는 알코올중독자들에 비해 이혼, 별거, 연인과의 이별, 신체적 폭력, 성학대, 강간 등 주요한 대인관계 스트레스 사건들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나 연인과의 이혼 및 이별은 성인알코올중독자의 자살행동을 선행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34]. 이러한 삶의 경험들은 심리정서적 원인이 되어 심리정서적인 음주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한 신체, 정신건강 장애는 심리정서적 소외감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알코올성 우울증은 자살의 주요 원인이 된다[8]. 알코올중독자의 자살은 여성알코올중독자보다 남성알코올중독자에게 더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중 25%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반복적인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종합해보면 알코올중독자들의 자살에는 우울, 불안, 이중장애 등 정신과적인 문제와 함께 알코올 가족력, 성장기 외상경험, 낮은 자존감, 내향성, 회피적 대처양식, 자

살 시도력, 사회적 지지망 및 자원의 결핍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I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알코올 중독자의 삶의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참여자 선정은 남성알코올중독자 중 자살시도경험이 있는 사람이며 그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대상자를 의도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으로 하였다. 남성알코올중독자를 의도적으로 표집 한 이유는 남성알코올중독자가 여성알코올중독자보다 알코올중독 및 약물중독으로 자살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16]를 바탕으로 했고, 연구자가 접촉한 알코올중독 병원은 남성알코올중독자만이 입원중이었다. 표집과정은 알코올중독병원에 치료중인 남성알코올중독자를 선정하기 위해 알코올중독병원을 접촉하였으며 과거 자살경험이 1회 이상 있는 남성알코올중독자를 소개받았다. 연구참여자는 5명이었다. Deborah K. Padgett(2008)에 의하면 개인의 삶에 대한 질적 연구의 경우에는 한명 혹은 몇 명의 연구대상만으로도 충분히 연구가 가능하다고 했다[35][36]. 연구대상자의 경험의 본질적 구조의 타당성을 참여자로부터 다시 확인하였고, 이러한 전후 과정은 주제에 그 의미가 반영되어 주제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게 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경험의 본질적 내용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면접내용을 녹음과 필사한 후 문장분석시 ATLAS. ti.(5.0)의 검색 및 분류작업을 일부 도구로 활용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6월 15일~8월 15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진행되었고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상태	자살시도 경험
참여자1	남	47	고졸	미혼	4회
참여자2	남	55	초등졸	재혼	1회
참여자3	남	54	고졸	미혼	3회
참여자4	남	37	고졸	이혼	3회
참여자5	남	36	고졸	미혼	2회

2.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현상학적 자료분석 방법들 중 Colaizzi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분석 방법은 참여자가 기술한 내용을 읽고, 의미 있는 진술을 범주화하여 전체현상에 대한 포괄적인 기술을 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속성보다 연구 참여자 전체의 경험을 광범위한 차원에서 도출해내기 때문에 개입서비스나 이론개발에 상대적으로 더 용이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35].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면접방법, 면접내용을 녹음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했으며 참여자가 진행도중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비밀보장이 유지됨을 고지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 대상자들에게 동의를 작성하게 한 후 심층면접을 시행하였다. 또한 필사된 연구내용을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시키는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의도와 의미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가졌다.

4. 연구의 엄격성과 정당성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엄격성과 정당성을 위하여 Guba와 Linclon(1985)의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네 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필사된 연구내용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사실적 경험내용의 일치도를 점검하였다. 둘째, 적용가능성을 위해 면담을 통해서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을 때 면담을 중단했고, 자신의 경험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참여자를 기준으로 모집했다. 셋째, 주제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알코올중

독과 질적 연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1인의 사회 복지학과 교수 및 1명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함께 지속적인 검토를 하였다. 넷째,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자의 사전지식, 판단, 편견, 경험에 대해 면담 전에 점검해보고 현상학적인 괄호치기(bracketing)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IV. 연구 결과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남성알코올 중독자의 삶의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진행한 결과 일반적 의미 형성과 주제묶음을 통해 반성적 고찰을 하였다. 그 결과 의미 있는 문장 총 421개, 일반화된 문장 52개, 하위범주 12개, 5개의 주제묶음을 도출하였다. 5개의 주제묶음은 ‘음주’와 ‘자살’을 포함한 경험의 분석이기에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보다 시간 차원에서 상호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으며, ‘심리·정서적 암흑의 굴레 지속하기’, ‘인정하기 싫은 하찮은 자신과의 조우’, ‘자살을 부추기는 방아쇠’, ‘음주와 자살의 뿌리-원죄 같은 해결되지 않은 숙명과 함께 살아가기’, ‘삶의 끈을 잡고 일어서기’로 분석되었다.

표 2.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남성알코올 중독자의 삶의 경험에 대한 주제묶음

주제묶음	하위범주
심리·정서적 암흑의 굴레 지속하기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감 지속되는 우울의 늪
인정하기 싫은 하찮은 자신과의 조우	자신도 불만인 성격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서러움
자살을 부추기는 방아쇠	삶에 대한 회의 증폭 가속 불은 반복음주
음주와 자살의 뿌리-원죄 같은 해결되지 않은 숙명과 함께 살아가기	신체적 학대경험 부모의 존재 부재 아버지와의 갈등
삶의 끈을 잡고 일어서기	일어서야하는 이유와의 만남 지지체계 만들어가기 음주와 자살에서 빠져나오려는 노력

1. 심리·정서적 암흑의 굴레 지속하기

참여자들은 자살을 시도하게 하는 불안감과 우울감의 부정적 감정을 인생 전반에서 느꼈고, 이러한 부정

적 감정이 음주와 함께 자살시도의 촉진제 역할을 했다. 술을 마시게 된 원인 때문에 우울한지 술 때문에 우울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다만 현재까지 불안감과 우울감은 지속적으로 느껴왔었고 극도로 느끼게 된 때에는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고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함께 하는 삶은 참여자들에게는 암흑을 걷는 것과 같고 이러한 암흑이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힘든 상황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씩이면서 살아왔다.

1.1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감

참여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지금까지 자신이 잘 못 살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기에 더욱 크게 인식하는 것이었고 이와 동시에 지금까지의 삶이 미래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 자신의 삶이 잘못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음주를 유도하고 자살시도를 부추기게 했다. 이러한 과정은 앞으로 술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불안한 미래를 맞아야 한다는 자신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었다.

사막에 혼자 있는 느낌이에요. 이런 불안감은 밤에 더욱 많이 느끼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집에 불을 끄지 않고 있거나 밤새 잠을 못 자기도 해요. (참여자 1)

‘뭐가 잘못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내 자신에 대해 확실한 믿음이 없어 늘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참여자 2)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 막연히 불안해져요. 앞으로 이대로 계속해서 살면 어떻게지? 하는 생각을 하면 불안이 점점 커져요. (참여자 3)

1.2 지속되는 우울의 늪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우울이 지속되고 술과 함께 했다. 우울의 감정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 자신의 상태 등을 생각했을 때 복잡한 마음을 대변하는 감정으로 표현되었다. 구체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 주변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 우울하게 느꼈다.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 음주를 하고 후회하는 등의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울감 또한 오래전 삶이 진행되면서 함께해온 감정이고, 자살생각을 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살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 우울

해서 고통스러워요. 이런 생각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고, 술먹고 깨면 또 우울해지고..... (참여자 2)

남한테 무시당하고 웃음거리, 자기할일 잘 못한다는 인식을 준다는 생각이 들 때 우울해져요. 제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잃어버렸을 때 자격지심이 생기면서 기분이 나빠져요. (참여자 3)

2. 인정하기 싫은 하찮은 자신과의 조우

참여자들은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성격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했고 이와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서러움을 느꼈다. 만족스럽지 못한 자신을 본인은 수용하지 못하면서 주변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기는 싫지만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면서 자기연민과 자괴감, 수치심, 열등감을 느끼면서 슬을 찾게 되고 자살생각을 했다.

2.1 자신도 불만인 성격

참여자 대부분 소심함, 다른 사람에 대한 엄격함, 화를 잘 내는 충동적인 성격에 대해 자신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의 성격이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바꿀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성격은 중독적 사고를 부추기는 것으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게 되면 감정을 못 참고 음주를 하게 되고, 충동적인 상태에서 자살시도를 경험했다. 구체적인 중독적 사고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참여자들은 변화되어야 할 자신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으나 변화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단정 지으면서 슬을 마실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갔다.

지금까지 살아온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혼자 싸이는 편이었어요. 혼자 속상해 하고 힘들어 해도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1)

제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들 사람 공중도덕, 예의범절 안 지키는 것 못 참는 편이에요. 평상시는 내성적이라 다른 사람에게 얘기도 못하는 성격이면서 그런 상황일 때는 엄격한 것 같아요.(참여자 3)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방 욱하고 화를 내요. 충동적인 성격 때문에 가족들 하고도 트러블이 있어 지금도 사이가 좋지 않아요. 원하는 대로 안되면 순간 폭발하고 그 순간이 지나면 제 자신이 미워지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4)

2.2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서러움

참여자들은 일차적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매우 서러워했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배신감을 느끼는 경험으로 감지했다. 사회 생활에서도 자신이 진심으로 행동했던 것에 대한 화답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험 이후에는 성실하게 임하기 보다는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에게 뭘 해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눈물흘림). 아버지가 엄격하셨는데 아들한테 까지도 엄격해서 너무 잡는 스타일이셨어요. (참여자 2)

직장에서 아무리 일을 잘해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의심을 하면서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아 힘들었어요. (참여자 1)

3. 자살을 부추기는 방아쇠

참여자들이 자살을 하기까지에는 인생 전체의 경험에서 오는 회의감을 느끼면서 정체성 없이 살아온 자신에 대해 아무런 답을 찾지 못하게 되면 충동적인 해결책으로 자살을 생각했다. 변화 없는 삶의 과정에서 이러한 좌절감을 술로 달래 왔고, 자살시도를 반복하는 경험을 했다. 참여자 대부분의 자살경험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라는 삶의 회의와 이로 인한 반복 음주와 함께 하면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인생을 경험했다. 이때 느끼는 감정들은 회의감, 자기연민, 좌절감, 자포자기 등으로 자살생각과 직접적으로 이어졌다.

3.1 삶에 대한 회의 증폭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이 이렇게 살아와진 것에 대한 후회를 바탕으로 회의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되기까지 도움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감을 느꼈다. 정체성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 대한 연민이 바탕이 된 자살사고를 했다. 알코올중독자들은 인생의 지지체계 없이 방향성을 잃은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인식했고, 이러한 삶에 대한 회의는 자살시도를 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살아봐야 가족들한테 폐만 끼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참여자 1)

제 자신이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좌절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젠 하고 싶지 않아서 자살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2)

3.2 가속 붙은 반복음주

단주의 실패, 회피적 문제해결, 빠져나오기 위한 뽀족한 방법이 없다는 생각 등으로 점점 더 술을 찾게 되고 단주기간이 짧게 되어 충동적 자살을 선택했다. 삶의 전체에서 해결하지 못한 자신의 과업들을 생각하면 미래도 막막하고 해결책은 없고 음주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이라는 회피적 문제해결 대처방법을 찾아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어 빠져나오지 못하는 미로에 갇힌 것 같은 경험을 했다.

3개월 입원 중 '술은 무서운 거다' 라는 것을 깨달았으나 6개월도 못 견디고 또 술을 마셨어요. 제 자신에 대한 미운감정, 좌절감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더 이상 살기 싫더라고요...(참여자 1)

자살시도를 하게 된 때에는 꼭 그 전에 술을 마시더라고요. 술기운에 용기가 나서 자살을 하게 되는 거 같아요. 평소 괴로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술 마시면서 한꺼번에 폭발해서 자살시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참여자 4)

4. 음주와 자살의 뿌리-원죄같은 해결되지 않은 숙명과 함께 살아가기

알코올중독자는 성장과정에서 외상의 경험을 하는 경우가 일반인에 비해 많다는 선행연구와 같이 본 연구의 참여자 대부분이 학대경험, 부모의 존재 부재로 인한 방임, 아버지와의 갈등 등을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들은 마음의 상처가 되어 삶의 전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어 음주를 시작하게 된 원인, 지속적인 음주를 하는 이유,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등의 뿌리 깊은 상처로 작용했다.

4.1 신체적 학대경험

참여자의 신체적 학대경험은 알코올중독이셨던 아버지의 구타, 구타경험 목격, 제 3자의 구타 경험 등 다양했다. 이러한 외상경험은 성장과정에서의 경험이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성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자신이 음주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인생을 이렇게 살 수 밖에 없는 이유와 연결하

면서 음주와 자살생각을 하는 합리화를 했다.

알코올 중독이셨던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들어오시면 때리셨어요. 아버지 때문에 술을 알게 됐지요. 그 뒤로 7년간 매일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참여자 1)

어머니가 일하러 나간 후 부모에게 맞았어요. 맞은 것은 큰 충격이었고, 그 이후로 우울해지고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해 학교도 안가고 사람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참여자 4)

지금 저처럼 아버지도 술을 많이 드셨어요. 술을 마시면 어머니를 구타하셔서 어머니가 반신불수가 되셨어요. (참여자 5)

4.2 부모의 존재 부재

가정형편상 부모님의 양육을 받지 못한 참여자들은 부모의 사랑을 원했으나 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좋지 못한 방임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한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음주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또한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과 존재감을 느끼지 못한 경험을 한 참여자들은 낮은 자존감과 자기비하적인 사고, 자기 존재감의 부정을 가져와 자신을 하찮게 여겨 '술을 마시고 죽어버리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살시도를 했다.

중학교 1학년 때 할머니 제사 때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져 고등학교 2학년 말까지 어머니가 간병하느라 자식들을 돌보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참여자 1)

장남이자 장손인 저를 조부모님이 데려다 키우셨어요. 부모의 존재, 사랑이 원지도 모르고 성장했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조부모님이 사망한 후 부모님을 가끔 봤는데 부모님이 서로 싸웠고, 어머니를 보면 도망갔었어요. (참여자 3)

아버지 없이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아버지의 존재 조차 몰르고 컸어요. 지금도 어딘가에 살고 계실텐데... 지금까지 4번 봤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참여자 4)

4.3 아버지와의 갈등

참여자의 아버지에 대한 갈등은 음주와 관련이 있어 음주를 하고 폭언, 폭행하는 아버지를 원망, 분노했다. 이러한 감정이 극에 달하면 음주를 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자신의 모습에서 동일시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측은지심을 느끼고 있다. 삶의 과정에서 아버지에게는 미운감정, 인정받고 싶은 마음, 분노, 측은지심 등 다양한 감정을 함께 해오면서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면서 분노감과 희망 없음을 느끼

면서 술을 찾게 되고, 자살을 생각했다.

포장마차 하시는 아버지 일을 돕지 않고 멍멍이 치면서 다니다 아버지 눈 밖에 나서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피해 다니면서 살았어요. (참여자 2)

저처럼 알코올중독이셨던 아버지를 어려서부터 무척 미워했었어요. 술을 드시고 어머니와 매일 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싫어했었어요. (참여자 3)

알코올중독이셨던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시는 모습을 보고 대들기도 하고 하면서 아버지를 미워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5)

5. 삶의 끈을 잡고 일어서기

참여자들은 희망적인 자신의 삶을 위해서 노력과 동시에 그레야만 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하나씩 가지고 있다. 주로 가장 가깝게 자신을 응원해주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면서 다시 노력해보려는 이유를 만들어 노력하려고 했다.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힘이 되는 대상자는 가족들이었고, 지지체계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여 음주와 자살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5.1 일어서야 하는 이유와의 만남

참여자들은 주로 자기 자신, 가족, 주변 알코올 중독자 등 관계의 대상에게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이유를 찾았다. 반면 자신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자신에 대한 불확실감과 믿음을 가질 수 없는 마음이 일어섬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로 자리 잡고 있다. 망설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누가 계실 동안만’의 조건을 붙이면서 노력해 보겠다는 생각을 했다.

제 자신을 끄떡이 생각하고 계시는 어머니의 속마음을 알게 되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술을 먹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참여자 1)

저의 집 아파트에 알코올중독자들이 많이 살아요. 간간히 자살 소식이 들릴 때면 자각하고 경각심을 갖게 되요. 그리고, 아픈 아내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커요. 스스로 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겨요. (참여자 2)

친구들과 비교해 보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자괴이 되요. 인생이 술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생각을 하면 억울하기도 하고... 술을 끊고 싶어요. (참여자 4)

5.2 지지체계 만들어 가기

관계를 통해 자신을 솔직히 보여주는 경험을 함으로써 든든함을 느꼈다는 참여자가 대부분 이었다. 진실된 관계형성을 통해 자신을 유지해나가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알게 된 참여자들은 자신을 도와주는 주변 사람들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알았다.

저 때문에 신경 쓰시는 팔순 넘으신 어머니와 형제들이 저를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을 보면 힘을 얻어요. 저는 혼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가족들의 정이 느껴질 때면 바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1)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집으로 1주일에 두 번 씩 방문해요. 주기적으로 저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야기를 하고 나면 뭔지 모르지만 기분이 좋아져요. 든든하기도 하고... (참여자 2)

5.3 음주와 자살에서 빠져나오려는 노력

참여자들은 단주 또는 자살을 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경험이 좌절감으로 느껴져 낙담으로 빠졌었던 경험을 많이 했다. 실패의 경험을 했어도 다시 시도해보려고 노력중인 참여자들은 앞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했다.

없는 일 찾아 인력시장에 나가 일을 찾아보기도 하고 술을 안마시려고 운동을 시작하기도 했었어요. A.A.모임에도 나가봤지만 지속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이것저것 해보려고 저 나름대로 애써 봤었죠. (참여자 1)

솔직히 술 생각은 계속 나오. 술 생각이 날 때 마다 운동으로 단주 중이에요. 일을 시작해서 돈도 벌고 제구실 하도록 해보려고요. (참여자 3)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의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남성알코올중독자의 삶의 경험은 가정 내에서 겪었던 ‘상처’와 이 ‘상처’로 인한 ‘미로’ 같은 삶을 반복해 나가지만 하나의 끈을 붙들고 ‘일어서기’의 삶을 살아보려는 경험을 함을 알 수 있었다.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제목은 ‘심리·정서적 암흑의 굴레 지속하기’ 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감, 우울감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안고 살아간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이 지속되고 강화

되면 '자살'과 연결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과도한 음주는 생리적, 친구나 가족과의 갈등, 직업 상실 등의 사회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자신과 타인에게 해로운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18][19]. 따라서, 알코올중독 전문가들은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알코올중독자들의 감정적 어려움을 삶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자신에 대한 불확실감 등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개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 주제묶음은 '인정하기 싫은 하찮은 자신과의 조우'이다. 삶의 전반에 성격적인 취약함 즉, 혼자 살아가기, 내성적인 면, 엄격함, 충동적, 다혈질적인 면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직장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부정이 높아 내적인 자신감이 부족하며 자신에게 엄격하지 못한 면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인의 감정에 맞추어 행동하고 자신의 감정을 늘 억누르는 경향으로 우울하거나 반항적인 감정상태로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25][29][33]. 자살시도경험이 있는 알코올중독자 개입에 있어 성격적 성향과 사회적 기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과업들을 파악하여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주제묶음은 '자살을 부추기는 방아쇠'이다. 참여자들은 인생 전체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면서 정체성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또한 반복적인 음주를 하면서 희망 없는 삶을 자살로 마무리 지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즉, 삶에 뚜렷한 의미나 목적을 갖지 못한 실존적 공허 상태의 알코올 중독자들은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것은 무가치, 무의미, 권태감에 사로잡혀 부정적인 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음으로써 중독 문제로 발전됨을 알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18][19][32][33].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은 알코올중독자들이 삶에 대한 회의, 희망 없는 삶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반복적 음주를 한다는 것을 민감하게 알고 자살로 연결되는 경로를 파악하여 적절한 개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주제묶음은 '음주와 자살의 뿌리-원죄 같은

해결되지 않은 숙명과 함께 살아가기'이다. 참여자 대부분은 성장기 과정에서 학대경험, 부모양육의 부재, 아버지와 갈등을 경험했고, 인생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알코올중독자는 주로 부모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자랐으며 성폭력과 학대를 당한 경험을 하기도 하고 폭력적인 가족 환경에서의 성장경험이 약물과 알코올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25][27][30][32]. 자살시도경험이 있는 알코올중독자 개입에 있어서 성장기의 외상경험에 대한 심리사회적 사정과 개입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주제묶음은 '삶의 끈을 잡고 일어서기'로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진 경험은 삶의 전반적인 과정이 힘겹고 자살로 마감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단 한 가지 자신을 바로잡게 하는 이유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그 핵심 대상은 가족이었으며 가족 중에서도 자신에게 희생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연민으로 인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알코올중독자는 대인관계 요인 즉, 배우자, 자녀, 부모, 이성 친구 및 친구 등의 사회적 지지에 의해 변화동기를 갖는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5][8][28]. 다섯 번째 주제묶음은 유일하게 자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는 주제로 도출되었다. 남성알코올중독자의 자살에 미치는 영향의 긍정적 요인이 있음을 인식하고 자살예방 개입에 있어 변화동기를 위한 요소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VI. 제언

본 연구는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남성알코올중독자의 삶의 경험을 탐색하였다. 따라서, 자살시도경험이 있는 남성알코올중독자들이 인생 전반에 걸쳐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본질을 찾아가고자 노력하였다. 결과에 따른 실천적 함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보건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자살시도경험을 한 남성알코올중독자 개입에 있어 '외상경험

screening'과 '삶의 의미의 재부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남성알코올중독자들의 반복되는 중독 주기와 자살의 근본 핵심에는 인생초기에 겪었던, 현재에도 해결되지 않은 '외상 경험'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으로 탐색되었다. 부모로부터 또는 이른 나이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학대경험, 편모에게서 성장했던 경험,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와의 갈등, 부족한 사랑 등의 경험은 남성알코올중독자들에게 있어 평생토록 따라다니면서 해결되지 않고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원죄로 남아있었다. 따라서, 남성알코올중독자에게 있어 어린 시절에 대한 '외상경험 screening'은 남성알코올중독자들의 사정에 있어서 필수사항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외상경험을 자살사고, 자살행동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중요한 단서로 민감하게 인식하고 남성알코올중독자들이 고착되어있는 과거의 경험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남성알코올중독자들의 회복과정에서 외상경험으로 인한 심리, 정서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왜곡된 삶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접근해 나갈 수 있도록 삶의 의미를 재 부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결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남성알코올중독자들의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프로그램은 총 5차원으로 구성되고, 불안, 우울 등 심리 정서적 차원 다루기, 현재 자신의 모습 대면하기, 자살을 부추기는 현재의 상태(삶에 대한 회의, 반복음주) 다루기, 외상경험 다루기, 앞으로의 삶 준비하기이다. 이 5차원의 단계는 남성알코올중독자의 심리적,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나아가면서 남성알코올중독자가 내적으로 empowering될 수 있도록 자신의 심리, 정서적, 대인관계적, 외부적 상황을 탐색하도록 이끈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자살 유경험 알코올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적 편차를 고려하지 못했다. 다양한 지역을 고려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남성 자살 유경험자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본 연구는 성별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 자살유경험자를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져 자살유경험자의 다양한 삶의 경험을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1]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 성인보건 의식 행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0.
- [3] E. C. Harris and B. Barraclough, "Suicide as an outcome for mental disorders: A metanalysis," J. of Psychiatry, Vol.170, pp.205-228, 1997.
- [4] 박형민, 자살행위의 성찰성과 소통지향성:1997-2006년 유사분석과 소통적 자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5] H. C. Wilcox, K. R. Conner, and E. D. Caine, "Association of alcohol and drug use disorders and completed suicide: An empirical review of cohort studies," J. of Drug and Alcohol Dependence, Vol.76, pp.11-19, 2004.
- [6] S. Boenisch, A. Bramesfeld, R. Mergl, I. Havers, D. Althaus, H. Lehfeld, G. Niklewski, and U. Heger, "The role of alcohol use disorder and alcohol consumption in suicide attempts: A secondary analysis of 1921 suicide attempts," J. of European Psychiatry, Vol.25, pp.414-420, 2010.
- [7] A. Lamis, T. Dorian, and S. Malone, "Alcohol use and suicidal behavior among adults: a synthesis and theoretical model," J. of Suicidology Online, Vol.3, pp.4-23, 2012.
- [8] L. Sher, "Alcoholism and suicidal behavior: A clinical overview," J. of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Vol.113, pp.13-22, 2006.
- [9] G. E. Borges, E. Walters, and R. C. Kessler, "Associations of substance use, abuse, and dependence with subsequent suicidal behavior,"

- J. of Biology, Vol.151, pp.781-789, 2000.
- [10] R. Kelly, J. J. Wood, L. S. Gonzalez, V. MacDonald, and J. Waterman, "Effects of mother-son incest and positive perceptions of sexual abuse experiences on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clinic-referred men," J. of Child Abuse and Neglect, Vol.26, No.4, pp.425-442, 2001.
- [11] A. Roy, "Distal risk factors for suicidal behavior in alcoholics: Replications and new findings," J. of Affective Disorder, Vol.77, pp.267-271, 2003,
- [12] 박규태, *알코올중독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13] 윤명숙, "알코올중독자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음주의 조절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38권, pp.113-140, 2011.
- [14] 윤명숙, 최수연, "알코올중독자의 자살시도경험,"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40권, 제4호, pp.27-56, 2012.
- [15] G. E. Murphy, E. Wezel, E. Robins, and L. Mcevoy, "Murtiple risk factors predict suicide in alcoholism," J. of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Vol.49, pp.459-463, 1992.
- [16] S. P. Pirkola, K. Suominen, and E. T. Isometsa, "Suicide in alcohol-dependent individuals: Epidemiology and management," J. of CNS Drugs, Vol.18, No.7, pp.423-436, 2004.
- [17] V. Modesto-Lowe, D. Brooks, and M. Ghani, "Alcohol dependence and suicidal behavior: From research to clinical challenges," J. of Psychiatry, Vol.14, pp.241-248, 2006.
- [18] S. P. Pirkola, K. Suominen, and E. T. Isometsa, "Suicide in alcohol-dependent individuals: Epidemiology and managemen," J of CNS Drugs, Vol.18, pp.423-436, 2004.
- [19] K. Graham, S. Bernards, R. Knibbe, S. Kairouz, S. Kuntsche, S. C. Wilsnack, T. K. Greenfield, and G. Gmel, "Alcohol-related negative consequences among drinkers around the world," J. of Addiction, Vol.106, pp.1391-1405, 2011.
- [20] G. R. Trezza and S. M. Popp, "The substance user at risk of harm to self or others: Assessment and treatment issues," J. of Clinical Psychology, Vol.56, pp.1193-1205, 2000.
- [21] K. M. Malone, G. L. Haas, J. A. Sweeney, and J. J. Mann, "Suicide attempt histories in alcohol-dependent men: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profiles," J. of Addictions, Vol.29, pp.1477-1486, 1994.
- [22] 서화정,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사업 개입전략: 노인자살의 영향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23] 정미향, *음주의준도와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의 관련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24] 이홍식, *자살의 이해와 예방*, 학지사, 2007.
- [25] 김인선, 권혜진, "알코올중독자의 삶의 목적의식과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중앙간호논문집, 제6권, 제2호, pp.37-43, 2002.
- [26] H. S. Jim, J. Q. Purnell, A. V. Ranchor, D. M. Golden-Kreutz, and B. L. Andersen, "Measuring meaning in life following cance," J. of Quality of life research, Vol.15, No.8, pp.1355-137, 2006.
- [27] V. E. Frankl, *Man's search for meaning*, Washington Square Press., 1984.
- [28] 이시형 역, *죽음의 수용소에서*, 청아출판사, 2005.
- [29] 한지연, *정신장애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30] 이봉재, "알코올중독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와 종교적, 영적대처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제2권, 제2호, pp.141-153, 2006.
- [31] 박병선, 진혜민, 허만세, "남성 알코올중독자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정신보건과 사회사

- 업, 제40권, 제1호, pp.172-204, 2011.
- [32] D. Donovan, M. E. Mattson, R. A. Cisler, R. Longabaugh, and A. Zweben, "Quality of life as an outcome measure in alcoholism treatment research," *J. of Alcohol*, Vol.15, pp.119-139, 2005.
- [33] L. G. McKee, M. O. Bonn-Miller, and R. H. Moos, "Depressive symptoms, Friend and partner relationship," *J. of Alcohol and Drugs*, Vol.72, pp.141-150, 2011.
- [34] K. R. Conner, R. J. Houston, M. T. Swogger, Y. Conwell, H. S. You, Sungeun, He, A. Gamble, and P. R. Duberstein, "Stressful life events and suicidal behavior in adults with alcohol use disorders: Role of event severity, timing, and type," *J. of Drug and Alcohol Dependence*, Vol.120, pp.155-161, 2003.
- [35] 신경림, *현상학적 연구*, 현문사, 2001.
- [36] Deborah K. Padgett, 유태균 역,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나남신서, 2009.
- [37] Johnston, 노진사 역, *Eating in the light of the moon(달빛 아래서의 만찬)*, 벅서스 Books, 2003.

저 자 소 개

우 재 희(Jea-Hee Woo)

정회원



▪ 2012년 2월 ~ 현재 :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임상사회복지실천, 정신보건사회복지, 의료사회복지, 알코올중독문제, 외상경험과 재활